추 모 사

지금 우리 사회는 천안함 사고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비롯해 일자리 부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다양한 사회갈등은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불교천태종 중흥조 <상월원각(上月圓覺)대조사 열반 36주기 추모재>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상월원각조사님이 더욱 그리운 것은 이렇게 세상살이가 어렵고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대에 조사님과 같은 스승의 가르침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월조사님께서는 일제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도 대중불교 · 생활불교 · 애국불교의 삼대지표를 통해 민족의 정신을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조사님의 가르침은 도용대종사와 정산 총무원장님 등의 후학들에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를 움직이는 한 축으로서 세계 속의 한국을 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대국이 되었고, 과학과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조선조 500여년의 억불(抑佛)과 일제 강점기, 서구 세력의 일방적 공세로 고난을 겪어온 우리 불교계도 이제는 안정 속에 발전을 이룩하여, 민족 전통 문화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민족의 통일로 가는 큰 걸음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불교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 진 것은 수행과 실천의 사표이셨던 상월조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월조사님은 일찍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혼자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부처님 인연법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우신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살 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추모의 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아름답고 살 만한 세상을 염원하는 우리의 바람도 그만큼 깊어져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하고 소통하며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나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아름다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이 화해하고 화합해 조국의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불기 2554(2010)년 6월 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